

野 내분 출구전략 ‘통합선대위’ 부상

국정화 장기전 돌입에 총선 공천률 놓고 계파 논쟁 재연

비주류 통합전대 요구... 文, 어디까지 내려놓느냐 관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정부의 확정 고시를 계기로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그동안 잠복했던 내년 총선 공천을 둘러싼 내분이 다시 분출될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대표 등 주류 진영에서는 통합 전당대회는 어렵지만 통합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은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에 당내 전면전을 피할 ‘출구 전략’으로 주목되고 있다.

당장, 정치혁신과 당내 통합을 기치로 내건 비주류 결사체인 가칭 ‘정치혁신을 위한 2020모임’이 오는 11일께 공식 출범한다.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정성호, 문병호, 최원식 의원 등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2020모임은 당내 통합을 하려면 지도부 교체에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 통합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비주류 모임인 ‘민중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도 이번 주 내에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낼 계획이다. 민집모는 지난 2일 이런 성명을 준비했다가 교과서 정국을 감안해 발표를 미룬 바 있다.

문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가 2선으로 물러나고 계파 수장급 인사들이 전면에서 총선을 준비하자는 ‘통합 선대위’ 구성 주장도 강해지고 있다. 일단 당내 인사들만 참여하는 초기 선대위를 구성한 후에 무소속 전정배 의원 등 당 밖에서 신당 창

당을 추진중인 탈당파와 통합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지난달 중순 당내 79명 의원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찬성했지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의원 총회 논의가 미뤄져 왔다.

문 대표 등 주류 진영에서도 이런 흐름을 감지하고 당 내분 확산을 막기 위한 방

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단 주류 진영에서는 ‘통합 선대위’ 카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통합 선대위 구성 주장이 비주류는 물론 중도 진영과 주류 일각에서도 호응하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공감대가 넓기 때문이다.

문제는 통합선대위의 권한이다. 비주류 진영에서는 최고위 권한을 통합선대위로 이관하고, 문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의 한 명으로서 제한적으로 참여하거나 문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가 사실상 2선 후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통합 선대위가 공심위 구성, 전략공천 방안 등 공천

을 총괄하는 기구가 돼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류 진영에서는 어느 정도 공천의 틀을 잡아놓은 뒤에, 통합 선대위가 출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당내 갈등이 고조될 경우 문 대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통합선대위 구성으로 출구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표가 총선 승리를 명분으로 아예 대표직에서 물러나 백의중군하는 상황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文, 4대 개혁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8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 등 4개 분야의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그림 그리는 ‘신당파’

천정배, 정운찬·김두관에 리브콜

호남+영남+충청 연합 모델... 이달 중순 창준위 발족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과거 DJT(김대중+김종필+박태준) 연대를 기초로 하는 신당 창당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호남과 영남, 충청의 지역적 기반을 토대로 수도권을 공략, 정권 창출의 활로를 찾겠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천 의원은 그동안 충청의 정운찬 전 총리와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접촉하며 신당에 합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천 의원은 지난달 30일 정 전 총리를 만나 신당 합류 의사를 타진했으며 김두관 전 지사외도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전 총리와 김 전 지사는 신당 합류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는 등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천 의

원의 속이 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 전 총리와 김 전 지사 카드가 과연 과거의 ‘DJT 연대’와 같은 효과를 낼 것인지도 미지수다. 정 전 총리는 이명박 정부 색채가 짙고, 김 전 지사는 영남에서 수도권으로 정치적 지역구를 옮긴 상황이기 때문이다.

천 의원은 8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분들의 상황이 있는 것 아니냐. 뚜렷하게 그분들의 신당 참여 여부가 결론이 난 것도 아니며 정치 변화를 원하는 분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어 “전반적인 호남 민심은 새로운 정치 질서를 원하는 거대한 흐름이 형성된 상황”이라며 “이번 주부터 창당준비위 구성을 위한 막바지 수순을 밟아갈 계

획”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또 “새정치연합에서 통합 선대위를 얘기하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 뒤, “이제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탈당 등의) 결단을 내릴 시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천정배 의원 진영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깊다. 당장 이번 주 내에 창당준비위원회의 일개를 짜야 하는 상황이지만 신당을 상징할 만한 인물 모시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천정배 의원 진영에서는 당초 이달 초 창준위 발족을 계획했지만 현실적으로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신당 바람이 주춤한 상황에서 창준위의 인물 구성이 인지도가 낮은 신인급

인사들이 중심이 된다면 신당 창당에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다.

신당 창당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야권에서는 천정배 의원이 보다 큰 틀의 전략 수정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제안한 원탁회의 참여 등을 통해 신당 바람을 일으키고 새정치연합 비주류 진영과의 소통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에서 천정배 신당의 창당준비위 구성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온다면 신당 바람은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천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은 창당준비위 발족이 1차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3일까지 선거구 확정안 마련 최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서 합의... 대타협 주목

여야가 지난 6일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확정안을 법정처리 시한(13일)까지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에 따라 이번 주 초반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포함한 여야 원내지도부 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13일이 법정처리기한이니 그 전까지 정개특위에 선거구확정과 관련된 지침을 쥐어준다”면서 “이에 따라 필요한 회의는 조속히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선거구 확정안의 본회의 통과 시한은 13일이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조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 간 합력투기가 벌어지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의원정수 300명을 늘릴 수 없으니 비례대표 수를 줄여 놓은 지역 대표성을 지

키자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구 의원수를 현행 246명에서 250명 초반대로 늘리는 협상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수 축소에 반대하면서 의원 정수를 3명 늘림으로써 놓여진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거나 비례대표 수를 3석 정도 줄이는 대신 독립성 권역별 비례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야의 표발인 영·호남 지역의 선거구 수 조정을 놓고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협상 난항은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영남과 호남에서 각각 2석·3석을 줄이는 방안을, 새정치연합은 각각 3석씩 줄이는 방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과 국회의원정수를 오는 10일까지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녹색희망포럼 창립 발기인 모임

박준영 전 지사 신당 싱크탱크

가칭 녹색희망포럼은 6일 광주프라도 호텔에서 창립 발기인 모임을 하고 조만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조선대학교 교수들이 주축이 됐으며 이상열 전 조선대 총장이 상임대표를 맡았다.

박일재 전 미래학장·신인현 전 교평의장·박용원 전 법대학장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발기문에서 “분산된 힘과 지혜를 결집하고 소시민 보통사람들의 실질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해 포럼을 만들게 됐다”고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차대통령, 주중 총선용 개각

정종섭·황우여 장관 등 최대 4명 교체될 듯

박근혜 대통령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8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을 대상으로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래 저의 거취와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 시점에서 사의를 밝히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치인 출신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 장관을 포함한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당신의 광장! 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떡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교생)	미취학어린이
월요일 12,500원	8,500원	5,000원
화요일, 목요일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